

광주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사회 복귀 디딤돌 역할 톡톡

2022년 전국 최초 설립...136명 이용
상담·일경험·자조모임까지 통합 지원

광주시에 전국 최초로 설립한 '광주시은둔형 외톨이지원센터'가 지역 은둔형 외톨이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연결 창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이 함께 운영하는 광주시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는 2022년 문을 열었다.

앞서 광주시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센터는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생활습관 및 대인관계 개선 프로그램, 일경험·취업 연계, 동아리(자조모임) 활동 등 은둔 당사자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활동 프로그램인 '무등산 속 마음산책'은 이른바 '명량한 은둔자 모임'으로 불린다. 외출이 두려거나 무기력증에 빠진 당사자들이 편백

숲, 미술관, 사찰 등을 함께 거닐며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도록 도와준다. 사회기술 훈련 프로그램 중 하나인 '아무튼 출근'도 이용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용자들은 가상회사인 '아무튼 회사'에 4주 동안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규칙적인 일과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흐트러진 일상의 리듬을 되찾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과 진로 탐색 등의 도움을 얻는다.

센터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총 136명이 센터를

찾았다. 이용자 통계를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20대가 6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38명, 10대 22명, 40대 9명 순이다. 은둔을 시작하게 된 연령 또한 20대(78명)와 10대(38명)에 집중됐다.

은둔의 주요 원인으로는 대인관계(56명) 문제가 가장 많았으며 학교폭력, 취업 실패, 가정 내 갈등 등이 복합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와 가족, 지인은 누구나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온라인 누리집 또는 전화(062-511-052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31-6 4층에 위치한 센터 내 자율공간인 '누구나울'도 상시 운영되고 있다.

남미선 돌봄정책과장은 "은둔 당사자들은 각자가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변화하고 성장하려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다"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힘을 믿어주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회적 지지 기반을 만드는 것인 만큼 은둔 당사자들이 자신만의 속도로 세상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기자

“아름다운 남도에서 ‘반값 여행’ 즐기세요”

전남도, 지역사랑 휴가지원 5-6월분 접수
관광객 여행 경비 50% 지역화폐로 환급

전남도는 5일 "인구 감소 지역 여행비 반값을 지원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이 지난 4월 접수 결과 전국적으로 관광객의 높은 관심을 받은 가운데 5개 군에서 5-6월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화폐 등으로 환급하는 제도다. 1인 최대 10만원, 2인 이상은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전남지역 선정 군은 영광군, 영암군, 강진군, 해남군, 고흥군, 완도군 등 6곳이다. 이 가운데 5-6월분 신청을 받는 군은 4곳으로 접수 일정은 ▲영암군 5월8일 ▲고흥군 5월 중순 ▲해남군·영광군 각 5월20일 ▲완도군 5월 말이다. 강진군은 자체적으로 '반값여행' 사업을 추진 중이며 6월부터 국비사업으로 전환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군별로 신청 절차와 여행 기간, 증빙 방식 등이 다른 만큼 신청 전 해당 군 누리집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사업 전반에 관한 사



인구 감소 지역 여행비의 반값을 지원하는 정부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에 선정된 영암·고흥·해남·영광·완도 등 전남 지역 5개 군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5-6월분 신청을 접수한다. 사진은 고흥 읍성 전경. <전남도 제공>

향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은 고물가·고금리로 위축된 여행 수요를

회복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관광업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하반기에도 숙박할인페스타와 전남 섬 반값여행 등을 추진해 국민이 부담 없이 전남을 여행하는 기회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기자

전남도, AI 위기경보 '주의'로 하향

모든 방역지역 해제...행정명령·공고 종료

전남도는 지난 1일자로 도내 모든 방역지역을 해제하고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이번 위기경보 하향에 따라 현재 도내에 발령 중인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소독필증 보

관 의무 등 행정명령과 방역기준 공고는 모두 종료됐다.

다만, 위기경보 수준이 완화됐더라도 과거 보철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해 전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상황실 운영, 예찰, 검사, 점검, 소독 등 주요 방역조치는 계속 추진한다.

이영남 동물방역과장은 "철새 북상 이후에

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며 "봄철 영농 시기에 경각심을 잃지 말고 전실 사용 생활화,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농장 안팎 철저한 소독 등 핵심 차단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동절기 전국 9개 시·도 가금농장에서 총 62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전남은 5개 시·군 11건으로 집계됐다.

/양시원기자

전남 청년 희망일자리 기업·청년 모집

최저임금 120%·인건비 최대 60% 지원

전남도는 5일 "청년의 지역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전남 청년 희망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 올해 참여 기업에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청년 채용 개선과 기업 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기준을 확대했다. 청년 보장 임금을 최저임금의 110%에서 120% 수준으로 높이고 기업 인건비 지원 비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했다.

기업에는 청년 1인당 1년간 매월 12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청년 보장임금 월 258만원의 50% 수준이다.

고졸 이하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경제선지능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취업에 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 비율

을 최대 60%로 적용해 월 최대 155만원을 지원한다.

또 채용 청년이 1년 이상 근무하고 정규직을 유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기업과 청년에게 각각 2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채용부터 장기 근무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로 강화한다.

모집 대상은 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도내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청년은 시·군 조례상 청년 연령 기준에 따라 전남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49세까지의 미취업 청년이다.

지원을 바라는 기업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 경제진흥원 대표 이메일(job3800@naver.com)로 신청하면 된다. 청년은 오는 28일부터 전남일자리정보망(job.jeonnam.go.kr)을 통해 사업 참여 기업에 입사 지원할 수 있다. /양시원기자

광주보건환경연구원, 경로당 실내공기질 무료 검사

15일까지 총부유세균 등 정밀분석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5일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광주지역 경로당 15곳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무료 방문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로당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지역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높다. 검사 대상 시설은 각 자치구와 협의해 선정했다.

검사는 호흡기 질환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총부유세균과 부유곰팡이, 발암물질로 알려진 라돈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연구원은 정밀 분석을 통해 실내공기질 상태를 평가하고 현장에서 환기·소독 등 관리 요령



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이세형 환경연구부장은 "사회복지시설 실내 공기질 무료 검사는 연구원이 적극행정 차원에서 돌봄이웃의 건강 향상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이라며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기자

대동강 맥주

대리점 완전독점 대동강맥주 공급업체 공고 모집

이미 아는 분들은 다 아는 아시아 최고의 라거!!!
국내 최초 (북한)대동강 맥주가 새로운 시장의 문을 엽니다!

- 대동강 유역의 맑은 물과 엄선된 보리로 완성된 깊은 풍미
- 마케팅 없이도 고객이 먼저 찾는 이름
- 지역별 한정 대리점 모집을 통한 독점 안정적인 영업권 보장
- 불황에도 대동강 맥주는 출시전부터 예약문의가 폭주하는 검증된 아이템입니다



- 모집대상** 주류유통 유경험자 및 신규 사업 희망자(주류 면허 없어도 됨)
- 지원내용** 영업권역보장 홍보물지원, 광고지원
- 특 전** 초기 계약 시 계약금 최소화

성공은 타이밍입니다! 대동강 맥주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 각 시·군 선착순 모집 ★ 문의 | 자연과 생명 연구소 080-374-5046